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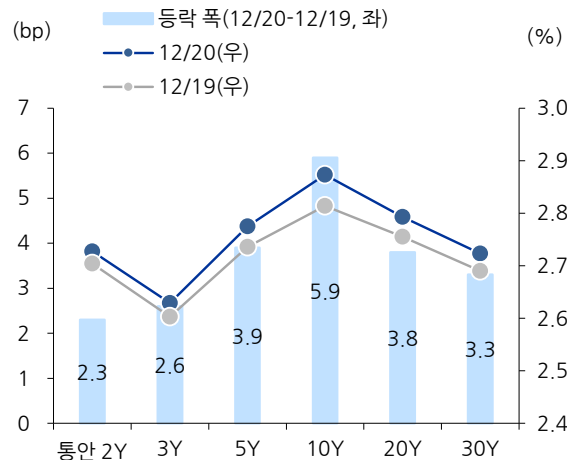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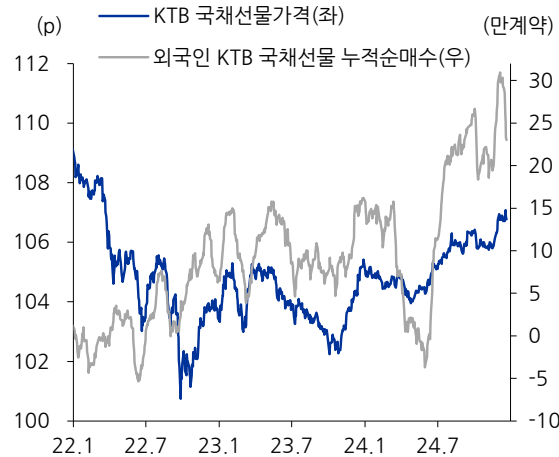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2/20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629%	2.6	8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73%	5.9	19.7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4.4	21.1	13.5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77	-8.0	-1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17.45	-54.0	-180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10%	-0.9	6.3
	미국채 10년물	4.524%	-4.0	12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21.4	24.6	15.1
	독일국채 10년물	2.282%	-2.1	2.5
	호주국채 10년물	4.494%	8.2	20.7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12월 FOMC 매파적 인하 여파 지속. 전일 미 지표 호조 영향도 반영. 오전 중 외국인 10년 국채선물 매도로 장기금리 중심 반등이 이어짐
- 야당이 추경을 촉구하며 공급 부담도 가중. 근래 한은 총재도 조기추경을 지지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도 30조원 이상 대규모 추경 언급하는 등 정책 당국자 사이 공감대가 형성 중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예상을 하회한 11월 PCE 물가로 안도감 확산, 금리 하락. 시카고 연은 총재, PCE 발표 직후 미국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% 향한 둔화경로에 있음을 언급.
- 반면 12월 금리 동결을 지지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, 물가 둔화 추가 증거 필요함을 강조. 통화정책이 한동안 다소 제약적으로 유지해야함을 언급. 연준 인사간 엇갈린 시각이 제시됨
- 금일 미국 12월 CB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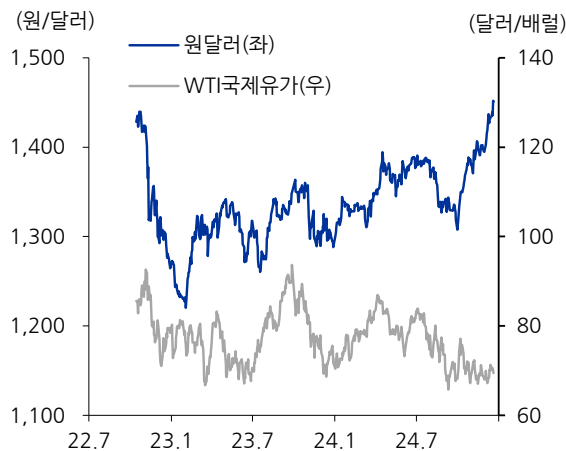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12/20일	1D	1W	YTD
원/달러	1,451.40	-0.0%	1.3%	12.7%
달러지수	107.80	-0.5%	0.8%	6.4%
달러/유로	1.043	0.6%	-0.7%	-5.6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29	-0.2%	0.2%	2.4%
엔/달러	156.35	-0.6%	1.8%	11.0%
달러/파운드	1.257	0.6%	-0.3%	-1.2%
헤알/달러	6.09	-1.0%	0.6%	25.4%
WTI 근월물(\$)	69.46	-0.6%	-2.6%	-3.1%
금 현물(\$)	2,622.91	1.0%	-0.9%	27.1%
구리 3개월물(\$)	8,941.00	0.7%	-1.2%	4.5%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0.50원 하락한 1,451.40원에 마감. 야간거래는 1,448.50원에 마감
- 미 연방정부 섰다운 우려가 불거지며 투심이 위축, 외국인과의 동반 매도세로 코스피 약세. 이에 원/달러 환율도 상방 압력이 가해짐
- 아울러 지난 FOMC 이후 달러 강세 이어졌으나 정책당국 개입 경계감이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을 제한함. 이에 이틀 연속 1,451원대에서 상방이 견고한 흐름 시현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예상을 하회한 PCE 물가로 하락
- PCE, 헤드라인과 Core 모두 +0.1%(M) 상승하며 예상치 +0.2%(M) 하회. 굴스비 총재, 이번 물가 결과를 가리켜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. 아울러 연준의 신중한 입장에 내년 기준금리 내릴 수 있음을 강조
- 유로화, 이날 달러 대비 상대적 강세. 요하임 나겔 ECB 위원, 내년 중반 중립금리 도달 가능성 언급한 점이 주목 받음